

[로스쿨 소식]

10대 로펌 신입변호사 296명 분석해보니

-남성이 64.2%... 젠더갭은 작년보다 더 벌어져

국내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에서 '젠더 갭(Gender Gap, 성별 격차)'이 더 벌어졌다. 이른바 'SKY대' 출신 선호 경향도 계속됐다.

본보가 2022년 우리나라 10대 대형로펌에 입사한 신입 변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남성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고, 서울대와 고려대·연세대 로스쿨 및 학부 졸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 '남성·SKY 쏠림 현상'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 신입 변호사의 연령대는 낮아졌고 연령폭은 좁아졌다. 신입변호사 채용 문은 넓어졌지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떨어진 것이다.

◇ '28세 남성' 다수... 40대 0명 =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 규모는 늘었지만 인적 구성은 예년에 비해 획일화됐다.



올해 10대 로펌에 취업한 신입 변호사들의 평균 나이는 만 28.8세로, 지난해 만 29.3세보다 약간 낮아졌다.

전체 연령대는 25~39세 사이에 분포됐다. 예년과 달리 40대 신입 변호사는 단 1명도 선발되지 않았다. 25~42세 사이였던 예년보다 연령폭이 줄어든 것이다.

20대 신입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. 올해 10대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 가운데 20대는 197명으로 전체의 66.5%를 차지했다. 61.5%였던 지난해보다 5%p 늘어났다. 30대는 99명으로 전체의 33.5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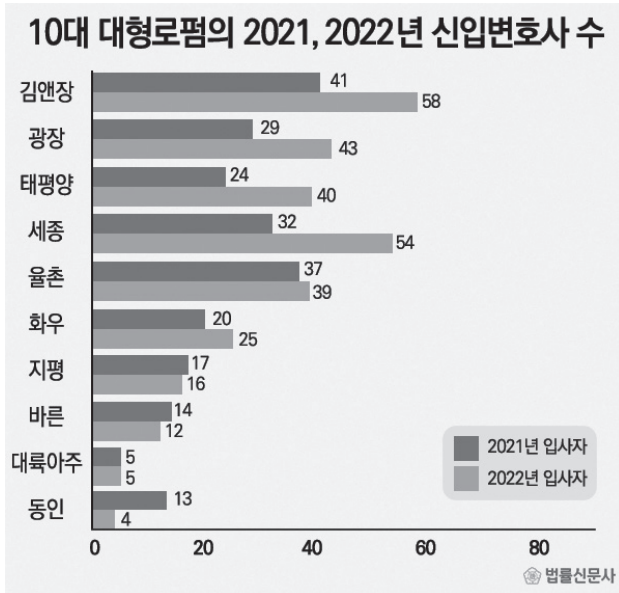
1. 'SKY 쓸림현상' 심화, 8개 로스쿨 출신은 입사자 전무

신입 변호사 가운데 28세가 68명(23%)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. 이어 29세 44명(14.9%), 27세 39명(13.2%), 30세 37명(12.5%) 순이다. 27~30세가 절대 다수인 63.6%에 달한다.

10대 로펌 전체 신입 변호사 296명 가운데 남성은 190명(64.2%), 여성은 106명(35.8%)이다. 지난해 남성 신입 변호사 비율이 63.4%였던 것과 비교하면 0.8%p 늘었다.

10대 대형 로펌 가운데 여성 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입 변호사 4명 중 2명(50%)을 여성으로 뽑은 법무법인 동인이다. 이 밖에도 태평양이 신입 변호사의 45%(18명), 대륙아주가 40%(2명)를 여성으로 채용했다.

여성 신입 변호사 수 자체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이다. 세종은 신입 변호사의 37%에 해당



하는 20명을 여성 변호사로 채용했다. 이어 김앤장이 18명(31%), 태평양이 18명(45%), 울촌이 15명(38.4%)의 여성 변호사를 신입 변호사로 뽑았다.

2. 20대가 197명으로 전체의 66.5%, 40대는 한 명도 없어

◇ 'SKY 쓸림' 현상 심화 = 'SKY(서울대·고려대·연세대) 쓸림 현상'은 예년보다 심해졌다.

올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중 서울대·고려대·연세대 로스쿨 출신은 모두 230명으로 전체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 295명 중 78%를 차지했다. 지난해에는 이보다 낮은 77.1%였다.

로스쿨 별로는 △서울대 124명(42%) △연세대 56명(19%) △고려대 50명(16.9%) △성균관대 18명(6.1%) △한양대 15명(5.1%) △이화여대 9명(3.1%) △서강대 6명(2%) △경희대·아주대 각 3명(1%) △중앙대·한국외대·경북대 각 2명(0.7%) △서울시립대·건국대·충남대·부산대·동아대 각 1명(0.3%)의 입사자를 배출했다. 대형로펌 입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로스쿨은 8곳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.

3. 경영학 76명·경제학 43명·법학과 20명, 이공계도 23명

신입 변호사들의 출신 학부를 살펴보면 전체 296명 가운데 서울대·고려대·연세대 출신은 총 249명으로 84.1%에 이른다. 지난해 81.5%에 비해 2.6%p나 늘었다. 출신 로스쿨에 이어 출신 학부에서도 SKY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.

경찰대 출신이 11명(3.7%)으로 적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. 성균관대 출신은 8명(2.7%), 한양대 출신은 5명(1.6%), 이화여대·카이스

트 출신은 각 4명(1.3%), 서강대·한국외대 출신은 각 3명(1%), 경희대·중앙대·서울시립대 출신은 각 1명(0.3%)이다. 외국 대학 출신은 6명이다.

신입 변호사들의 학부 전공을 살펴보면 경영학·경제학 등 상경계열 출신이 119명으로 전체의 40.2%를 차지했다.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학 76명(25.7%), 경제학 43명(14.5%), 법학과 20명(6.8%) 등의 순으로 많았다.

전기전자공학과 화학·기계공학·생명공학·약학·반도체시스템·신소재공학 등 이공계열 전공자도 23명(7.7%)이다.

또 정치외교학, 사회학, 철학, 행정학, 국제학, 심리학, 영어영문학, 언론정보학 순으로 많았다. 국사학, 국어국문학, 교육학, 서어서문학, 주거의류학, 인도어 등 다양한 전공 출신의 신입 변호사들도 눈에 띄었다.

(출처/법률신문)